

# 광양시, AI 자율제조 기술로 철강산업 경쟁력 높인다

### 정부 프로젝트 선정 100억원 확보... 지역기업 '성원'과 기술 개발 기업들 자금·인력난 덜고 AI 기술 제조 공정에 결합 자율화 구현

광양시가 정부의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돼 철강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광양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공모사업 철강 분야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는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한 이후 추진된 사업으로, AI 기반의 로봇이나 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해 자율화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인력난·생산성 정체·탄소중립·산업 현장 안전문제 등 제조업을 둘러싼 당면과제 해결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중소기업에도 큰 의미가 있다.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자율제조 기술 도입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광양시는 1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지역 중소기업 ㈜성원과 함께 자율제조 기술 개발에 나선 계획이다. ㈜성원은 대구경 강관 제조 공정 자동화와 핵심 공정의 지능화 및 무인화를 추진해 고부가가치 제품인 대구경 강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산업부 장관, 주요 지자체장(부단체장), 프로젝트 참여 기업·기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하고 올해 추진할 26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산업부는 오는 2027년까지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를 200개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오경택 (주)성원 대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자금과 인력난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광양시 중소기업의 우수한 자율제조 선도 공장으로 도약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오희 광양시 신산업과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광양시는 정부의 AI산업 정책을 선도할 계획이며, 지역 기업이 AI 기술 개발 도입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바른 자세가 건강한 삶의 지름길”

### 보성보건소 자세 교정 교실 개강

보성군이 지난 28일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한 '자세 교정 운동 교실'을 개강했다. <사진> 보성군보건소는 긴 시간 목과 등·허리를 숙이고 컴퓨터 화면 및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아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체형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세 교정 운동 교실'을 운영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발병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12월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8회에 걸쳐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운동교실에서는 참여자의 균형 능력 및 보행 자세를 측정하고, 거북목 및 일자목 교정, 골반 교정 운동, 보행 교정 운동법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학성 보성군 보건소장은 "바르지 못한 자세나 노화로 인해 생긴 통증은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교육 문의와 신청이 많았던 만큼 참여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은백 기자 kyb@

## ‘웹툰·애니 레전드’ 윤태호 작가·에릭 오 감독 순천 온다

###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 내달 2일 연사 초청 토크 콘서트

**“콘텐츠 산업의 미래” 전문가 특강**  
\*\*\* 순천 시 실내 전시장 '가성'에 따라 순천시 ans 재일 공제 예정 \*\*\*

11/2	11/2
<미생>, <이끼> 등 '윤태호 작가' 토크콘서트	<인사이드 아웃> 등 '에릭 오 애니메이터' 토크콘서트
	
시간   14:00 장소   오천그린광장 신청   현장 자유참석(사전신청 X) 내용   만화 제작 노하우, 대표작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시간   16:00 장소   오천그린광장 신청   현장 자유참석(사전신청 X) 내용   픽사 시점과 독립 후 비하인드, 애니메이션의 미래

올텐가 토크콘서트 라인업.

을 탄생시켰다.  
이어 오후 4시에는 '오페라'로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 오스카 후보에 오른 에릭 오 감독의 토크콘서트가 이어진다. 에릭 오 감독은 픽사 스튜디오에서 근무한 경험뿐만 아니라 대형 미디어아트 체험전을 여는 등 폭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감독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픽사 근무 경험, 독립 활동 계기와 과정, 애니메이션의 미래 등 예비 애니메이터들과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무대를 꾸밀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잘 가꾸어 온 생태자원 위에 웹툰·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를 도시 곳곳에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특히 예비 작가들이 순천에 오면 다양한 기회를 접하고, 배우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문화산업의 뿌리를 깊숙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크콘서트는 우선 시 실내로 변경해 진행된다. 행사 장소는 당일 기상 여건에 따라 확정된 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지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사 여수 신월~신기삼거리 내년 3월까지 일부 통제

여수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굴착공사로 인해 내년 3월까지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송현삼거리-롯데캐미칼사택 앞 교차로-신기삼거리 일부 도로를 통제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18년 5월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한 사업 제안서 검토와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월 총사업비 785억원을 확보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여수그린허브는 내년 6월까지 재처리시설 1개소와 공급관로 18.6km를 시설해 여수국가산단 내 수요처에 하수처리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로 굴착공사가 불가피함에 따라 우회도로 홍보 및 출퇴근 시간대를 피한 작업시간 확보 등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여수시 재난관리 우수기관 행안부 장관 표창

### 특별교부세 8900만원 확보

여수시가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안부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900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년도 재난관리 실적을 평가하는 재난 분야의 최상위 종합평가로, 올해는 중앙부처(29개)·공공기관(66개)·지자체(243개) 기관을 6개 분야 44개 지표에 따라 분석·평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chkim@

이번 평가에서 시는 ▲재난 상황관리를 위한 대응체계 유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 ▲실제 재난 사고 대응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남도 내 최고점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앞으로도 재난관리역량을 꾸준히 높여 우수기관의 명성을 유지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개체수 늘어난 지리산 반달가슴곰 주의하세요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복원 20주년 맞아 보호·안전 캠페인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가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반달가슴곰의 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이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난 2004년 러시아에서 도입한 6마리를 방사하면서 시작돼 올해로 사업 2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운영하여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안전물품(종·호루라기)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내달까지 기념기간으로 지정해 SNS를 통한 홍보와 경품추첨 이벤트, 지역축제와 연계한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반달가슴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전남사무소는 구례군·시민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밀렵·밀거래 단속활동을 국립공원 밖까지 확대 실시하여 서식지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관계자는 "반달가슴



국립공원공단 야생동물보전원이 반달가슴곰 동면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새끼 반달가슴곰.

곰 복원 20주년을 주요 이정표로 삼아 멸종위기종 복원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한층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리산에 사는 반달가슴곰은 89마리로 집계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순천 덕암동 아파트 공사, 시공사-주민 보상금 갈등 고조

### “지급 완료하고 공사 시작해야” “발파 피해 보험에서 모두 변상”

순천시 덕암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공사와 인근마을, 아파트 주민들 간 보상금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공사인 지에이건설은 순천시 덕암동에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7월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인근 송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 전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라는 입장이며, 시공사 측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발생하는 피해는 협의를 해나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발파공사가 시작되면서 갈등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전 협의없이 발파를 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발파공사 전 송보아파트와 구암마을, 덕암마을 주민들에게 발파공법, 장악량, 발파시간대 등 사전안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송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억원의 보상금을 주지 않을 경우 공사가 중지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민원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측은 민원인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국가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유사사례(5000만원)와 비교해 10배가 넘는 5억5000만원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근 구암마을과 덕암마을은 5억원과 1억원을 각각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할 순천시와 시의회는 시공사 측에 민원부터 해결하라는 식이어서 인근 주민들의 보상금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민호 송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회장은 "처음 아파트 인·허가시 기존 도로 확충과 공사를 진행하기전에 공경이나 공법 등을 사전 협의의 후 공사 개시를 해달라는 요구였으나 항상 통보식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광군 현장소장은 "도로확충 문제는 주 출입 도로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장하는 곳과 반대측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발파로 인한 피해는 추후 확인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모두 변상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덕암동 45번지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15층·20층 8개동 475세대로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공영민(왼쪽) 고흥군수가 지난 2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조규산(오른쪽) 농림해양예산과장에게 고흥군이 추진 중인 역점사업을 설명하며 정부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 고흥군, 3대 미래 전략산업 국비 확보 '쟁걸음'

공영민 군수 기재부 방문 지원 건의

고흥군은 민선 8기 군정의 우주, 드론, 스마트팜 등 3대 핵심 미래 전략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공영민 군수는 지난 2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고흥군이 추진 중인 역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고흥군이 건의한 역점 사업은 ▲국도 15호선(고흥-봉래 나로우주센터) 4차로 확장(5622억원) ▲국립 팔

영산권 난대 산림지원원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 연소 시험시설 구축(485억원)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200억원) 등 총 10건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국가 예산 반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꼭 2030년 고흥 인구 10만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